

社會變動과 매스·컴퓨터이전*

—“近代化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理論”에 대한 하나의 다른 視角—

李 相 禧

<目 次>

- | | |
|-----------------------|----------------|
| I. 政策科學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研究 | III. 近代化理論의 論理 |
| II. “近代化理論”의 背景과 性格 | IV. 하나의 다른 視角 |
| | V. 結으로 |

I. 政策科學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研究

원래 社會科學이라는 것은 모든 社會的인 現象, 政治·經濟·文化的인 社會現象을 그 對象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國家가 遂行하는 政策 自體도 社會科學의 對象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주로 美國의 커뮤니케이션 科學은 한 마디로 政策科學(policy science)의이라고 할 수 있다. 政策科學이라는 것은 任意的 政府가 遂行하는 政策이나 大企業體의 方針에 貢獻하는 研究活動을 말한다. 社會科學은 政策을 그 對象으로 삼을 수 있으나 政策科學은 결코 政策 自體를 對象으로 삼을 수 없으며 그것이 奉仕하는 政策의 下位에 있으면서 다만 그 政策의 效果的인 遂行을 뒷 받침할 따름이다.

美國의 커뮤니케이션 研究가 活潑化해진 것은 1930年代였으나, 여기에 앞서서 美國 커뮤니케이션 理論의 整地作業은 C.H Cooley⁽¹⁾나 G.H Mead 또는 John Dewey 등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었다. 또한 오늘날에도 눈부신 活躍을 계속하고 있는 Walter Lippmann은 이미 1922년에 “Public Opinion”이란 名著를 통해서 매스·컴퓨터이전이 人間의 思考나 價値觀, 나아가서 그의 運命까지를 左右할 것이라는 警告를 한 바 있었다. 이와 같은 美國 커뮤니케이션 理論이 展開되기 始作한 歷史的 客觀的 背景으로는 19世紀에 登場한 大衆新聞이 던진 社會的 功過에 대한 論議와 점차 注目을 끌기 始作한 映畫에 대한 社會的 物議, 나아가서 1920년에 登場한 商業放送⁽²⁾ 등의 새로운 大量傳達 媒體에 의한 重疊된 커뮤니케이션 現象이 世人의 耳目을 끌지 않을 수 없는 社會的 現象으로 登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 社會學者, 哲學者들의 關心과는 다른 次元에서 美國의 實踐의·實用的 커뮤니케이션 研究는 活潑化해지기 始作하였으며 漸次 그 性格의 特性을 形成하기에 이르렀다. 20

* 이 論文은 1969年 春季 韓國社會學大會에서 發表되었던 것을 整理한 것이다.

(1) C.H. Cooley의 “The Significance of Communication” “Human Nature and Social Order” 등 參照.

(2) Pittsburgh에 등장한 KDKA局은 美國 商務省의 正式認可를 얻은 人類史上 最初의 放送局이었다. 그리고 처음서부터 商業放送이었다.

世紀에 접어들면서 美國의 企業精神은 더욱 유감없이 發揮되면서 人類의 科學·技術이 쌓아 올린 새로운 媒體, 라디오까지도 利潤追求의 目的으로 利用하는 것을 잊지않았다. 二年 後에 始作된 英國의 放送制度가 公共企業體(public corporation)인데 比해서 美國의 放送이 처음부터 商業放送이었다는 事實도 美國의 政治·經濟的 風土의 反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美國의 商業放送은 sponsor 를 獲得하기 위하여 聽取者의 數나 program 에 대한 청취율을 알 必要가 있었다. 그리고 聽取者의 program 에 대한 기호는 물론 聽取行態까지도 把握해야만 했었다. 이러한 具體的인 動機 속에 受信者分析((audience analysis)이라는 커뮤니케이션 研究의 한 主流가 이루어져 나갔다.⁽³⁾ 뿐만 아니라 1910年, 1920年代의 美國은 第一次世界大戰을 前後해서 다른 當事國들과는 달리 홀로 國家的 富의 蓄積과 企業의 興盛을 이룩하고 있었다. 大量生産과 大量消費라는 물결에 따라서 “advertising” “marketing”이라는 用語가 登場하게 되었으며, 大量生産을 뒷받침하는 大量消費를 가져오기 위하여 매스·미디어를 如何히 活用할 것인가 하는 問題意識이나 實踐的인 研究가 軌道에 오르기 始作했다. 1929年의 經濟恐慌은 美國 經濟體制에 큰 衝激을 주었으며 壁에 부딪친 生産活動을 如何히 再稼動시킬 수 있을 것인가, 또한 如何히 勞動者를 說得시키고 흐트러진 生産體制를 再整備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問題狀況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러한 歷史的 고비에 登場한 것이 이른 바 “Public Relations” 活動이 있었다. 두말할 것 없이 Public Relations 活動은 매스·커뮤니케이션은 물론 對人的·커뮤니케이션 까지를 動員하는 것이며 美國의 實踐的 커뮤니케이션 研究가 공헌하는 主要한 舞臺일 수 밖에 없었다.

美國의 커뮤니케이션 科學이 이와 같이 企業的인 動機로 지탱되고 있는 동안에 歐羅巴와 日本에서는 Fascism 이 擡頭되고 있었으며 世界第二次大戰의 氣運은 점차 무르익어가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經濟恐慌과 거기에 따르는 國際的 緊張이 계속되다가 美國은 日本으로부터 眞珠灣 攻擊을 받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政治·經濟·社會的인 全般的 危機라는 國內外情勢에 直面한 美國은 커뮤니케이션의 全能力을 動員해서 事態에 對處해야만 할 必要에 부딪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敵國의 宣傳活動은 史上 類例를 볼 수 없는 방대한 量과 날카로운 技巧를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緊張된 狀況 속에서 커뮤니케이션 研究도 現實的인 要請에 副應하는 方向으로 性格形成이 이루어져갔다. 具體的으로는 戰時 커뮤니케이션, 말하자면 敵國 宣傳活動의 分析이라든가, 政治宣傳이나 心理戰爭의 研究로 美國의 커뮤니케이션 科學은 틀이 잡혀간 것이다. 물론 第二次大戰 前에도 政治宣傳이나 心理戰에 관한 研究가 美國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령 政治學者이면서 커뮤니케이션 科學을 開拓한 H.D. Lasswell

(3) '20年代의 初步的인 調査를 발판으로 '35년에는 G.W. Allport 등의 “Pshchology of Radio”, '40년에 H. Cantrill의 “Invaders from Mars”가 나오고 이것이 Columbia大學의 Lazarsfeld 그룹으로 계승되고, '41년에 “Radio Research”, '46년의 R.K. Merton에 의한 라디오 캠페인 調査 “Mass Persuasion” 등으로 계속된다. 이러한 一連의 方法論的 基礎는 主로 社會調査에 의한 實態分析과 大量觀察이었다. 이 方法論은 그 후의 매스·커뮤니케이션 研究에 큰 影響을 미치고 있다.

은 1927 年에 “世界戰爭에 있어서의 宣傳技術⁽⁴⁾을 내어놓은 바 있으며, 1935 年에는 L.W. Doob 의 “宣傳의 心理學”이 出刊되어있다. 한편 研究機關으로서도 宣傳分析研究所(The Institute for Propaganda Analysis)가 이미 設立되어있었다. 다만 이와 같은 美國의 커뮤니케이션 科學은 더욱 더 直接的으로 政策과 密着하게 되었으며, 第二次世界大戰이 일어나자 美國政府 內에 情報局, 檢閱局, 戰略情報局, 美大陸調整局 등을 統合 組織한 機構로서 戰時 커뮤니케이션(Wartime Communications)이 設立되었으며, 이와 같은 戰時 커뮤니케이션 研究에는 많은 커뮤니케이션 研究者들이 動員되었던 것이다.

아무튼 美國의 커뮤니케이션 研究는 企業體나 政府등의 組織體가 그들의 目的達成이나 政策遂行을 하는데 있어서 如何히 매스·미디어를 利用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매스·미디어를 目的達成이나 政策遂行의 手段으로 利用하였을 경우 어떠한 効果나 機能을 期待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達成하였는가, 나아가서 그러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內容을 大量傳達할 것인가 하는 등의 問題意識이 主流를 이루웠던 것이다. 이와 같은 美國의 커뮤니케이션 研究의 性格이 바로 政策科學(policy science)인 것이며 政策科學은 本質적으로 任意의 組織體가 遂行하려고 하는 政策에 從屬된 研究活動이며, 政策 그 自體를 研究의 對象으로 할 수 있는 社會科學과는 그 次元을 달리한다 할 것이다.

II. “近代化理論”⁽⁵⁾의 背景과 性格

1959 年에 美國 커뮤니케이션 研究의 重鎮 중의 한 사람인 Bernard Berelson 은 美國의 매스· 커뮤니케이션 研究가 壁에 부딪치고 있으며 앞으로의 展望이 悲觀的이라는 글⁽⁶⁾을 發表한 적이 있었다. Berelson 의 이러한 主張에 대하여는 反論이 加해진 바도 있으나, 한 때 美國의 커뮤니케이션 研究가 沈滯된 霧圍氣 속에 있었던 것은 事實이다. 그와 같은 低調를 깨고 지난 數年 동안에 擡頭된 傾向이 이른바 커뮤니케이션 研究에 있어서의 近代化理論이다.

1958 年에 Daniel Lerner ⁽⁷⁾는 “傳統社會의 推移”——中東의 近代化過程——(The Passing of Traditional Society——Modernizing the Middle East——)라는 著書에서 中近東社會가 傳統社會(the traditional society)에서 近代社會(the modern society)로 나아가고 있는 移行社會(the transitional society)라고 規定하고 이들 移行社會가 近代社會를 建設하기 위하여는 아직도 西歐(the West)가 有用한 model 이라고 主張하면서 ⁽⁸⁾이들 社會의 社會改革이나 社會變動의 重要한 動的要因의 하나가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論理를 展開 하였다. Daniel Lerner 가 近代化

(4) 第一次大戰 중의 國際的인 政治宣傳을 分析研究한 것이다.

(5) “Communication Theory of Modernization”을 一旦 이렇게 稱하기로 한다.

(6) P.O.Q. Spring '59 pp. 1~6 “The State of Communication Research”

(7) D. Lerner 의 經歷을 보면 第二次大戰중에는 聯合軍派遣軍 最高司令部(SHAEF) 心理戰爭局 情報課主任, 美合衆國軍政部 情報統制局 情報課長 등을 歷任한 研究者다.

(8) Lucian W. Pye 의 “Communica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의 '63 年刊, Paperback Edition 에의 序文 參照.

過程과 매스·미디어와의 函數關係에 注目한 以來, 美國 커뮤니케이션 研究에는 두더러지게 “近代化” 내지는 “發展” 문제와 커뮤니케이션과의 相關關係를 取扱하는 研究傾向이 나타나게 되었다.

現在 Massachusetts 工科大学의 政治學教授 및 同大學 國際問際研究所의 責任研究員으로 있는 Lucian W. Pye 는 1963 年에 “커뮤니케이션과 政治的 發展”(Communica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라는 冊을 編輯하였다. 그의 序文에 의하면 『이 冊은 1960 年에서 1963 年에 걸쳐서 Ford 財團에서 交付된 補助金으로 社會科學研究會議(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중의 比較政治委員會가 刊行하는 “政治的 發展의 研究”(Studies in Political Development) 시리즈의 第一卷이다.』라고 이 冊의 背景을 밝히고 또한 이 冊의 核心的인 主題나 담겨진 見解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나왔는가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現代政治에 있어서의 顯著한 現象은, 새로운 國家나 急速히 變動하고 있는 國家가 國際社會에서 어떤 地位을 획득하기 위하여 政治的인 여러가지 形態, 過程, 政策을 實際로 試圖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比較政治學委員會는 이들 國家의 試圖를 理解하는 동시에 또한 그 試圖의 앞날을 展望하는 能力을 向上시키기 위한 概念, 洞察, 理論의 發展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이 計劃을 進行시키는데 있어서 委員會는 數次에 걸친 會議나 研究세미나를 開催하였으며 그 過程에서 發展途上에 있는 여러 地域의 近代化 및 民主化의 問題를 究明하기 위하여 美國이나 그 外의 社會科學者, 敎育者, Journalist, 政治指導者, 官吏 등의 見解가 모여졌다.』

말하자면 後進 新生國家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政治現象을 理解하고 거기에 對處하기 위하여 政治指導者나 官吏들과 研究者가 協力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冊의 具體的인 目的을 『本書는 全般的으로, (중략) 政策的인 일들, 即 政治的·社會的 發展을 推進하는 手段으로서 커뮤니케이션을 利用하는 問題를 正面으로 다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과 政治的 意見의 表明의 必要性을 연결하는 것은 主로 政治家에 의한 매스·미디어의 利用이다』⁽⁹⁾라고 하고 있다. “政治家에 의한 매스·미디어의 利用” 이것이 그들의 主題요 問題意識인 것이다. 그리고 1964 年에는 W. Schramm에 의해서 “매스·미디어와 國家發展——開發途上國家에 있어서의 인포메이션의 役割——”(Mass Media and National Development—The Role of Information in the Developing Countries)이라는 冊이 나왔다. 이 冊은 Stanford 大學과 UNESCO의 共同出版으로서 UNESCO의 事業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 UNESCO는 매스·미디어의 國際的인 發展을 促進하기 위하여 1960 年에는 아시아地域을 위한 방콕會議, 1961 年에는 라틴·아메리카를 위한 산치아고會議, 그리고 1962 年에는 아프리카를 위한 파리會議를 계속하여 열었다. 이러한 一連의 會議에 參席한 Schramm 이 이 會議의 內容을 整理한 것이 이 冊이다. 이 冊이 나오게 된 背景이나 그것의 副題에서도 端的으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後進國에 있어서의 매스·미디어의 役割이 무엇인가, 또는 어떻게야만 하는가 하

(9) L. Pye ed. *ibid.* p. 21.

는 것이 이 冊이 나오게 된 動機의 主題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 나온 一連의 研究 結果는 D. Lerner와 W. Schramm 두 사람에게 의해서 편집된 “開發途上國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과 變革”(Communication and Change in the Developing Countries)이다. 1967년에 發行된 이 冊은 당시의 美國大統領이었던 Lyndon B. Johnson에 의해서 序文이 쓰여졌다. 1964년에 하와이의 東西센터(East-West Center)에서는 約 한 달에 걸쳐서 커뮤니케이션과 發展途上國의 문제에 관해서 研究會가 열렸었다. 從來의 이러한 主題의 一連의 研究는 주로 美國의 研究者들에 의한 것이었으나 이 東西센터의 研究會에서는 現地, 말하자면 發展途上國에 몸을 담고 있는 研究者들의 參加와 協力을 얻는 한편, 그들의 研究와 見解를 듣는 것이 하나의 特色이었다. 印度 타키스탄 필리핀 등의 研究者들이 參加하고 있다. 이 研究會의 核心은 “國家發展에 있어서의 國際協力과 커뮤니케이션”(10)이라는 問題였다. Lerner는 이 문제를 論하면서 自己가 1958년에 發表한 “The Passing of Traditional Society”에서 主張한 『後進國의 發展을 위해서는 아직도 西歐는 [有用한 Model]』이라는 命題를 조심스럽게 계속 展開한다. Lerner에 의하면 西洋의 發展의 모델은 “料理冊의 處方”(cookbook recipe)과는 달라서 상당히 選擇의 自由는 있으나, 그래도 모든 發展途上에 있는 社會에서는 實際로 期待를 上昇시키는데 있어서의 對答으로 登場하고 있다고 主張한다. (11) 그래서 結局, 發展을 이룩한 國家들, 말하자면 西洋(the West)이 後進國에 대해서 그들의 國家가 將來에 어떠한 方向으로 發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며 發展途上國에 대한 模範(Model)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後進國들은 發展을 이룩한 西洋과 國際의 協力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昨年인 1968년에는 Michigan 洲立大學의 커뮤니케이션 研究所(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Institute)에서 “Mass Communication and the Development of Nations”라는 論文集이 나온 바 있다. 이 論文集도 低開發國家의 社會·經濟의 發展과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研究의 계속이며, 同系列의 從來의 다른 研究들과 마찬가지로 美國 政府關係機關의 財政的 援助로 이루어졌다. 이 研究에는 “國際開發局”(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와 “大衆情報에 관한 美洲計劃”(Programa Interamericano de Information Popolari)에서 全的인 支援을 했었다. 여기에 실린 論文들에는 D. Lerner, Ithiel d.S. Pool, L. Pye, W. Schramm 등 이른바 近代化論者들의 所論이 到處에서 引用되고, 이들의 研究結果를 답습하고 있으며, 亦是 하나의 體系(system)으로서의 國家의 發展過程에 影響을 주는 主要한 變數의 하나로서 매스·커뮤니케이션을 重要視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로 美國에서 이루어진 커뮤니케이션과 社會發展 또는 近代化와의 函數關係를

(10) D. Lerner의 論文題目. 自己自身과 W. Schramm 共同編輯의 “Communication and Change in the Developing Countries” '67 East-West Center Press의 第二章.

(11) D. Lerner and W. Schramm. ed. ibid. p. 103.

다른 研究들이 어떠한 背景과 問題意識에서 이루어졌었나 하는 것을 紹介하였으나, 이러한 一連의 研究가 基本的으로 어떠한 性格의 것인가 하는 것은 Lucian Pye 에 의해서 잘 表現되고 있다. 그는 그가 編輯한 冊의 序文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컴퓨터네이션에 관한 研究分野가 開拓되기 始作한 것은 일찍이 自由로운 制度가 威脅을 받고, 國家政策에 緊急한 問題가 있었을 때였으나, 그것은 現在의狀況 下에서도 大端히 意義 깊은 일이다. (중략) 戰後 컴퓨터네이션 研究의 分野는 더욱 擴大되어서 研究者의 世界와 政府나 企業界와의 사이에는 微妙한 關係가 維持되고 있다. 따라서 이 研究分野에는 【實際의 政策問題를 尊重한다는 獨特한 傾向이 存在하고, 研究를 하기에 따라서는 知識의 進歩를 損傷시키지 않고도 政治問題를 取扱할 수 있는 高度의 理解가 存在해있다.』 또는 『컴퓨터네이션 研究의 分野는 이미 理論的 社會科學의 世界와 現實의인 國家政策의 世界와를 극히 效果의으로 연결하는 것이라는 事實이 立證되고 있다.』는 등으로 說明된다. 以上과 같이 컴퓨터네이션 研究의 性格을 밝히면서 그들의 共通된 問題意識이나 主된 研究目的은 이렇게 表明하고 있다. 『政策指向의 컴퓨터네이션 研究의 大部分은 他人의 態度나 行動을 變容시키는 문제라든가, 異質의 文化라는 障壁을 넘어서 行해지는 컴퓨터네이션의 문제를 取扱해왔다. 이들 문제는 다 같이 政治的 發展過程에 있어서 극히 重要한 것이다.¹²⁾』

결국 컴퓨터네이션 研究에 있어서의 近代化 理論의 性格은 한 마디로 “政策指向”(policy oriented)의인 것이며, “異質의 文化”를 뚫고서 “他人의 態度나 行動을 變容”시키는 것을 目的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近代化理論은 美國의 컴퓨터네이션 研究가 처음서부터 지니고 있던 政策科學(policy science)으로서의 性格을 더욱 明確히 드러내고 있으며, 具體的으로는 美國의 對外政策을 直線的으로 反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近代化理論의 論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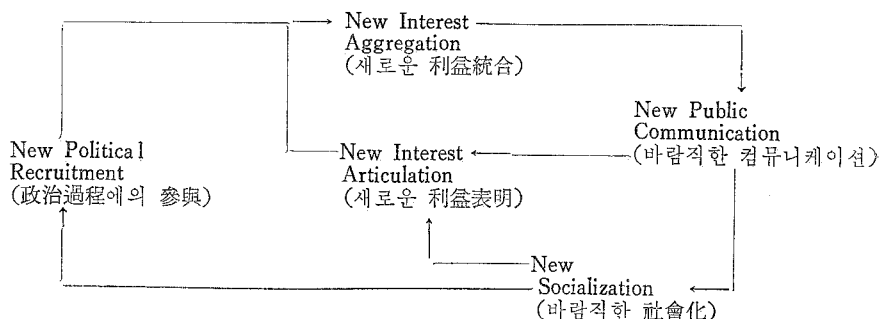
먼저 近代化論者의 代表的인 한 사람, D. Lerner 의 所論을 들어 본다. 그는 L. Pye 가 편집한 “컴퓨터네이션과 政治的 發展”의 가장 마지막 節에 “近代化에 관한 컴퓨터네이션 理論을 위하여”(Toward a Communication Theory of Modernization)라는 論文을 실고 있다. 이 論文은 앞에 실린 여러 論文들을 뒤편에서 “近代化理論”의 論理的 展開를 맡고 있는 셈이다. 그의 論理는 다음과 같이 展開된다. 『本論文의 理論的 基礎는, 近代社會라는 것은 相互作用的 行動體系이다——라는 命題에 있다. 卽 이 體系는 그 構成要素의 하나가 有效하게 機能하기 위하여는 다른 모든 構成要素들도 有效하게 機能할 必要가 있다는 뜻에 있어서 각 構成要素들은 相互作用的인 것이다. (중략) 한 構成要素의 活動의 重要한 變化가 다른 모든 構成要素의 活動에 重要한 變化를 가져온다는 뜻에서 이들 構成要素는 全體로서 하나의 體

(12) L.W. Pye ed. *ibid.* p. 13. Introduction 參照.

系를 形成하고있다.』⁽¹³⁾ 이와 같이 體系(system)에 대한 說明을 하고 다음과 같이 本論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우리들은, 미디어 體系(media system)와 社會體系(social system)는 “歷史的인 흐름에서 보면 相互提攜해서 進歩할 수 밖에 없었다는 事情에서 대개 平行的으로 發展해왔다.』⁽¹⁴⁾ 라는 生覺을 展開하고자 한다.』 요약해서 그의 論理를 추려 보면 全體 構成要素 중의 하나인 매스·미디어가 發達되어서 또하나의 構成要素인 人間에게 慾望(aspiration)을 불러일으키면 그것이 動因이돼서 全 社會體系가 活潑하게 稼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다만 念慮가 되는 것은 1950年代에는 世界의 大部分에서 經濟開發計劃이 擴大되었기 때문에 “期待增大革命”(revolution of rising expectations)이 일어났으나 1960년에는 그것의 過激한 反作用, 即“挫折增大革命”(revolution of rising frustrations)이 일어날 可能性이 있다. 말하자면, 지나친 期待(expectation)를 불러일으켜 놓고 萬若 實績(achievement)이 따르지 못한다면 挫折(frustration)이와서 副作用이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매스·미디어를 效果的으로 利用하되 適切한 control이 필요할 것이다. 慾望充足率(the Want : Get Ratio)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表示할 수 있겠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text{滿足(satisfaction)} = \frac{\text{實績(achievement)}}{\text{慾望(aspiration)}}$$

그리고 『매스·미디어라는 것은 大衆에게 새로운 興味를 끌수 있는 狀況을 그려 보이고 選擇possible한 輿論을 提示해서 近代化된 社會에의 參與를 가르치는 것이다.』⁽¹⁵⁾ 『매스·미디어와 政治的 民主主義와의 關聯은 密接한 것이다. 매스·미디어의 受信者와 有權者는 다 같이 社會에 積極적으로 參與하려는 個人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리하여(매스·미디어가 個人에게 “感情移入” empathy 을 하여) 사람들은 서로 孤立된 狀態에 놓여있던 傳統社會에서는 關心을 갖지 않았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도 意見을 갖게되고 自己들 나라의 公的 生活에도 參加하게 된다.』⁽¹⁶⁾ 이와 같이 매스·미디어와 政治的 民主主義와는 密接한 關係에 놓여있다고 하면서, 매스·미디어가 全體體系로서의 하나의 社會에 發展을 가져올 “key factor”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說明되는 圖式 속의 位置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13) L.W. Pye ed. *ibid.* p. 329.

(14) D. Lerner의 前著 “The Passing of the Traditional Society”에서 展開된 論理다.

(15) 이것이 이른바 D. Lerner의 “感情移入”(empathy)이라는 것이다.

(16) D. Lerner “Toward a Communication Theory of Modernization” in L. Pye ed. *ibid.* p. 342.

이 圖式은 經濟學者 Gerald M. Meier 와 Robert E. Baldwin 의 經濟成長 모델⁽¹⁷⁾을 본 받은 것인데, 결국 『努力과 報償, 慾求와 實績을 연결하는 役割을 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過程이다. (중략) 이런 뜻에서 커뮤니케이션은 民衆을 社會化(socialization)시키는데 있어서의 重要한 手段이며, 또한 民衆이 社會化된다는 것은 社會的 變動의 重要한 要因이다.』⁽¹⁸⁾ 말하자면 任意的 社會가 하나의 體系로서 發展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새로운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new public communication)이 하나의 動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發展途上에 있는 國家의 매스·커뮤니케이션은 生氣없는 傳統社會的인 人間들에게 “感情移入”을 해서 그들을 “期待”에 부른 人間으로 “社會化”하고 나아가서 그 國家의 政治家들이 遂行하는 政治過程에 積極的으로 參與하게 해야만 한다는 論理다.

W. Schramm의 論理는 어떠한 것인가. 그는 이 問題에 관한 그의 前掲書에서 대략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展開한다.

『한 나라에 있어서의 發展의 process 에는 基本的인 dynamics 가 있다. 이것의 根源을 이루는 것은 生産性을 위한 貯蓄과 投資이다. 社會 各部分의 發展의 背後에는 人的資源의 動員(mobilizing human resources)이 必要하다. 工業部分에서 一大 飛躍을 하기 위해서는 農業部分, 社會的經常費(social overhead) 그리고 人的資源이 어느 程度까지 發展할 必要가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은 그렇게 손쉽게 이룩될 수 없는 slow tempo 한 過程이기 때문에 大幅的인 人間改革이 必要해지는 것이다. 無氣力하고 停滯的인 人間資源을 活動的이고 知的인 協力者로 만들기 위해서는 information 의 흐름을 speedy 하게 하고 教育을 베풀며, 글자를 아르고 技術을 배워줘야 한다. 同時에 지금까지의 낡은 習慣이나 行爲를 새로운 것으로 옮기도록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새로운 예견과는 다른 社會關係에 移行시킴으로써 오랜 동안의 信念體系나 價値體系를 바꾸워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른바 歷史的 變化라는 緩漫한 tempo 도 아니요, 그렇다고 權力의 힘으로 變革을 強要해서도 안 되며, 說得과 information 의 흐름을 빨리 함으로써 自發的으로 社會發展에 參加하도록 모든 것을 變革시키는 것이 要望된다. 한 마디로 國家發展이란 人間變革 그 自體이며 (The point is that national development is people changing themselves.) 이 人間變革의 mover 야말로 매스·커뮤니케이션이다.』⁽¹⁹⁾

이와 같이 國家發展에 있어서의 Information 의 役割을 說明하고, 다른 그의 論文, “커뮤니케이션의 發展과 社會發展 過程”(Communication Development and Development Process)⁽²⁰⁾에

(17) Gerald M. Meier and Robert E. Baldwin, *Economic Development; Theory, History, Policy*. '57 pp. 319~320.

(18) D. Lerner의 前掲論文 pp. 347~348.

(19) W. Schramm, *Mass Media and National Development* pp. '64. 20~38 Chap. I. “The Role of Information in National Development.” 參照.

(20) L. Pye ed. *ibid.*에 실린 W. Schramm의 論文.

서 “推進者로서의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as mover)을 다음과 같이 整理하고 있다.⁽²¹⁾

『國家經濟가 發展하는데 따라서 根本적으로 國家體系는 더욱더욱 活潑化해진다. 冬眠狀態에 있던 諸關係가 움직이기 始作하고 그 때까지 自己完結적이던 諸要素가 相互關係를 맺게 된다. 體系全體를 통해서 눈부신 活動力과 生産力이 增大된다.』『前에는 目標를 내걸고 거기에 관한 뉴스를 알리고 더욱 그 受信者를 擴大하기 위하여 利用되던 커뮤니케이션은 이번에는 國家目標의 達成水準을 높이기 위하여 利用되게된다.』 이어서 그가 條目別로 드는 것을 보면은 다음과 같다.

- 1) 커뮤니케이션은 國民意識을 느끼도록 하는데 貢獻해야만 한다.
- 2) 커뮤니케이션은 國家計劃에 대한 擴聲器(the voice)로서 利用되어야만 한다.
- 3) 커뮤니케이션은 必要한 技術을 아끼는데 利用되어야만 한다.
- 4) 커뮤니케이션은 效果的인 市場 擴大를 위하여 利用되어야만 한다.
- 5) 開發計劃이 推進되는데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은 民衆들이 그들의 새로운 役割을 遂行할 수 있도록 하는데 利用되어야만 한다.
- 6) 커뮤니케이션은 民衆들이 國際社會속의 一員으로서의 그들의 役割을 遂行할 수 있도록 하는데 利用되어야만 한다.

以上과 같이 커뮤니케이션은 무엇 무엇을 하는데 “利用되어야만 한다”(must be used to...)는 것으로 Schramm에 의해서 任務를 賦與받고 있다.

또 한 사람의 近代化論者 Ithiel de Sola Pool의 論理를 들어본다. 『매스·미디어가 對人的인 커뮤니케이션과 無關係한 狀態에 있으면은 民衆에게 情報를 傳達하고 慾望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은 行動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은 事實이다. (중략) 大部分의 低開發國에 있어서의 政府의 매스·미디어에 대한 미지근한 態度라는 것이 그들의 政權을 지탱하고 있는 政治機構의 弱體를 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는 指摘하고 넘어간다. 매스·미디어가 傳達하는 消息를 個人의 입을 통해서 支持하는 末端次元(grass roots)의 效果的인 政治機構 없이는, 매스·미디어 單으로는 願하는 行動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²²⁾ 그리고 매스·미디어가 갖는 効果에 대해서 社會科學的인 考察(the social science view of media effects)이라는 것을 하고 나서, 매스·미디어와 政治機構와의 密着度를 다시 強調한다. 『行動이나 어떤 技術面에 있어서나 또는 態度에 있어서의 變化라는 것은 매스·미디어 혼자만의 힘만으로는 效果的으로 이루워질 수 없다. 오히려 그러한 面으로 매스·미디어가 效果的으로 影響을 미치기 위해서는 매스·미디어가 그것이 하나의 付屬物((adjunct)이 되어있는 政治機構가 直接 效果的으로 作用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²³⁾ 그리고 그의 論文 “近代化 過程에 있어서의 매스·미디어와 政治”의 結論은 이렇게 맺어진다. 『미디어는 지금까지 大概의 非共產 後進國에 있어서나 美國의 開發計劃者들이 認識하고 있던 것 보다도 훨씬 發展을 위한 道具(instrument)일

(21) L. Pye ed. *ibid.* pp. 36~42 參照.

(22) Ithiel de Sola Pool, “The Mass Media and Politics in the Modernizing Process” in L. Pye ed. *ibid.* p. 237.

(23) I. de. Sola Pool의 前揭論文. pp. 251~252.

수 있다. 그러나 미디어가 效果的으로 利用되기 위해서는 미디어의 發展이 末端의 政治組織과 效果的으로 密着되어 있어야만 한다.』

Ithiel de Sola Pool의 所論은 매스·미디어가 效果的으로 利用되기 위하여는 對人的 커뮤니케이션의 도움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또한 政治組織과 반드시 密接하게 連結되어 있어야만 效果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며, 지금까지 認識되어있던 것보다는 利用하기에 따라서는 훨씬 效果的인 道具일 수 있다는 것이다.

IV. 하나의 다른 視角

커뮤니케이션 研究에 있어서의 近代化論者들이 理論的인 뒷받침으로 내세우는 것은 이른바 “體系論”이다. 가령 『우리들이 體系라고 말할 때, 그것은 相互依存的 分子들의 限界維持的 하나의 셋트(a boundary-maintaining set of interdependent particles)를 意味한다. 여기서 核心的인 말(key word)는 “限界”(boundary)와 “相互依存”(interdependent)이다. 相互依存이라는 것은 어떤 體系안의 하나의 構成分子에 일어난 일이 아무리 輕微한 것일지라도 그 體系全體의 均衡(balance)에 영향을 미치는 各部分의 關係를 뜻한다. “限界維持”라는 말은 各構成分子의 關係가 密接하기 때문에 어디서 그 體系가 끝났으며, 그것의 環境(外界)는 어디서 始作하였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러한 狀態를 뜻한다.』⁽²⁴⁾ W. Schramm이 自己의 理論을 展開하기에 앞서서 說明한 이 “體系論”은 그의 脚註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Kurt Lewin의 場의 理論(field theory)이나, Talcott Parsons, Robert K. Merton, 그리고 Harold D. Lasswell 등 一連의 社會學者들로부터 빌려온 것이다. 그리고 Daniel Lerner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引用한 그의 말을 다시 想起하기로 하자. 『本論文의 理論的 基礎는, 近代社會라는 것은 相互作用的 行動體系(interactive behavioral system)이다. ——라는 命題에 있다. 即 이 體系는 그 構成要素의 하나가 有效하게 機能하기 위하여는 다른 모든 構成要素들도 有效하게 機能할 必要가 있다는 뜻에 있어서 各 構成要素들은 相互作用的인 것이다.』

결국, 이들 近代化論者들이 體系論을 들고 나오는 것은 미디어 體系가 社會體系의 下部體系이며 하나의 構成要素이기 때문에 全體體系로서의 한 社會를 近代化시키는데 있어서 미디어體系를 核心的인 要素(key factor)로 삼을 수 있다는 論理를 展開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社會의 發展과 매스·미디어와의 相關關係를 規定하고자한 것이다. 이들이 主張하는 바와 같이 任意의 社會의 變動過程에 매스·미디어가 一定한 相關關係를 維持하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매스·미디어가 如何히 機能하는가, 다시 말해서 어떠한 方向으로 作用하는가가 문제인 것이다. 作用의 方向에 따라서 眞正한 뜻에 있어서의 發展에 貢獻하기도 할 것이며, 歷史的인 안목에서 볼 때 그러지 못할 境遇도 있을 것이다. 日本의

(24) W. Schramm; “Communication Development and the Development Process” in L. Pye ed. ibid. p. 30.

한 커뮤니케이션 研究者는 “커뮤니케이션의 社會的構造”를 論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社會體系와 커뮤니케이션의 兩者의 關係는, (중략) 多様な 機能의 相互關係를 굳게 한다는 事實에 비추워 본다면 “相互的”이라는 側面은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既存의 社會體系 內部的 諸矛盾이 認識되고, 現狀變革을 指向하는 意見이나 思想이 社會의 情報回路에 의해서 媒介되고 擴大될 때, 더욱 多様하고 廣範한 社會意識을 活躍化하고 組織하는 경우가 있다. 거기에서 社會構造 自體의 變革이 歷史적으로 現實化되는 것은 決코 드문 일이 아니다. 全體的인가 部分的인가 또는 瞬間的인 것인가 永續的인 것인가의 差異를 別問題로 한다면 社會의 發展과 變革의 모든 것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變化에 媒介되어서 現實化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5)』

하나의 體系라는 것은 원래 固定的인 것이 아니라, 그것의 各 構成要素들의 相互作用에 의해서 變化 發展하는 것이지만은, 그 構成要素들의 作用方向에 따라서는 그 體系自體가 維持되기도 하며 또는 消滅 내지 다른 形態로 變化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한 社會體系의 構成要素로서의 매스·미디어體系는 多少 特異한 性格을 지니고 있다. 一般的인 경우, 하나의 體系 內部的 構成要素들이 平常時는 그 體系를 維持保存하겠끔 相互作用하는데 比해서 매스·미디어體系는 다른 構成要素에 대해서 批判 또는 攻撃하는 作用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批判 또는 攻撃이 극단적인 경우 다른 構成要素를 弱화 또는 破滅시키는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매스·미디어의 機能은 全體로서의 한 社會體系를 維持發展시키기 위한 作用인 것이며 攻撃을 받은 그 構成要素가 社會發展이나 進歩를 위하여 阻害要因이었기 때문인 것이다. 이와 같은 阻害要因 중에는 당연히 任意的 社會의 政治權力이나 또는 그들의 政策도 包含될 수 있을 것이다.

現代社會의 政治過程에 있어서 매스·미디어는 power elite 와 一般民衆과의 中間에 그 戰略的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 매스·미디어는 現實적으로 政治權力과 民衆과의 中間에서 政治權力이 지닌 政策이나 價値觀을 一般民衆에게 傳達하는 “上意下達型” 커뮤니케이션으로도 作用하고, 또 한편으로는 一般民衆의 意見이나 批判을 反映하는 “下情上達型” 커뮤니케이션으로도 作用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兩者를 연결하는 媒介的 導管으로서의 二重機能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本質적으로는 어디까지나 民衆의 立場을 代辯하고 그들의 利益에 付合되는 方向으로 作用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위에서부터 주워진 下向式 또는 命令型 커뮤니케이션의 導管이 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上向式, 또는 批判的인 카운터 커뮤니케이션(counter communication)의 채널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包括的 體系로서의 한 社會가 궁극적으로는 그 構成員들인 一般民衆을 위해서 存在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그 社會 속의 어떤 構成要素가 民衆의 利益에 害로운 存在일 때에는

(25) 早川善治郎 「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社會的構造」, 千葉雄次郎編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要論』, 68. pp. 63~64.

當然히 變革 또는 除去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원래 한 社會體系의 下位體系로서의 매스·미디어는 그 社會內的 阻害要因을 監視 批判하는 것이 그 重要的 機能으로 되어 있다. 한 社會가 維持 保存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社會 內的 모든 要素들을 檢討하고 檢査하는 機能을 맡은 特殊한 構成要素가 있어야만 한다. 이와 같은 位置에 있는 것 중의 重要的 하나가 매스·미디어이며 그러한 特殊한 機能이 매스·미디어의 存在理由인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보면 매스·미디어는 社會의 다른 構成要素, 任意的 政策이나 그 政策의 遂行主體인 政權까지도 包含한 다른 構成要素들의 上位에 位置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서 近代化論者들의 論理를 다시 想起하기로 한다. 그들은 하나 같이 包括的 體系로서의 한 社會 內的 하나의 構成要素에 不過한 어떤 政府나 어떤 政策 自體의 性格에 대해서는 別로 關心을 表示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에게 共通되고 深甚한 問題意識으로 되고 있는 것은 이른 바 發展途上에 있는 國家들의 政府가 如何히 매스·미디어를 效果的으로 利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點이다. 任意的 政府가 그들의 이와 같은 目的을 達成할 수 있기 위하여는 매스·미디어는 『政府組織의 하나의 付屬物』(……political organization to which the mass media are an adjunct—I.de. Sola Pool——)이 되는 것이 가장 效果的인 것이며, 多樣的 言論이나 “言論의 自由”가 存在하는 것은 하나의 사치에 不過하다고 한다. W. Schramm은 印度의 例를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事實, 開發을 積極적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資源을 모우고 民衆을 動員하려고 하고 있는 國家에서 이 나라(美國)와 같이 自由롭고 서로 競爭하며, 때로는 民衆을 混亂에 빠트릴지도 모르는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을 期待한다는 것은 그것을 바라는 우리들(美國人)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들(美國人)이 오늘날 누릴 수 있는 奢侈(luxury)인 것이다. (중략) 대체로 가난한 나라에서 이와 같은 奢侈를 할 餘裕가 없는 것은 當然하다. 이러한 點에 우리들이 共感을 表示할 必要가 있으며, 이들 나라일지라도 經濟적으로 發展하고 政治的인 安定이 오면은 아마 言論의 自由는 漸次 擴大되어 갈 것이다.』⁽²⁶⁾

Schramm의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言論의 自由”는 마치 經濟發展이나 社會發展에 대해서는 하나의 거치장스러운 奢侈品이거나 障害物이라고 하는 것같이 느껴진다. 經濟的 發展과 政治的 安定이 오면은 言論의 自由가 擴大될 것이라고 하지만은 元來 言論의 自由라는 것은 歷史적으로 專制的인 政治權力에 抗拒함으로써,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人間의 基本的 自由로서 爭取되어온 것이다. 그것은 經濟的 繁榮이나 安定된 政治權力이 寬大한 雅量에서 下賜해 준 것이 아니라 數 많은 知性들의 희생적인 鬪爭과 그것을 뒷받침한 民衆들의 힘에 의해서 비로소 얻어진 結果이다. 政治的 自由의 核心的인 一環으로서의 言論의 自由가 爭取됨과 同時에 비로소 近代市民社會가 이룩 될 수 있었으며 民主的인 政治制度도 樹立될

(26) W. Schramm의 前掲論文, p. 55.

수 있었던 것이다. 民主的인 政治制度 없이 均衡잡힌 經濟的 發展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民主的인 制度가 侵害 當하고 있는 社會가 進歩 發展될 수 없는 것은 自明의 일이다. 다만 그와 같은 阻害要因들을 하나 하나 除去 改革함으로써 社會는 進歩 發展할 따름이다. 우리들은 政治的 發展 내지는 社會發展의 概念을 民主的인 制度와 健全한 社會·經濟的인 關係가 確立 伸張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言論의 自由는 民主的 制度나 政治的 發展에 대해서 빠트릴 수 없는 基本的인 要素이지, 決코 政治發展이나 社會·經濟的인 發展에 대한 奢侈品이거나 障害物일 수는 없는 것이다.

現代政治過程에 있어서 民主的인 要素에 대한 하나의 盲點으로서 날카롭게 指摘되고 있는 點은 power elite 들이 一方的으로 展開하는 大衆說得(mass persuasion)이나 思考方式의 敎化(indoctrination)이다. 이것은 主로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展開되는 下向式 커뮤니케이션의 現代的 樣式이라고 할 수있다. 또한 어떤 社會의 政治勢力이 어떤 社會的 制度나 매스·미디어를 掌握 또는 遠隔操作함으로써 그들이 願하는 方向으로 民衆들을 敎化 說得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民主的인 政治가 輿論을 反映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大衆說得이나 價値觀의 敎化는 輿論을 反映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power elite 들이 願하는 輿論을 造作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民衆을 統制하고 그들의 民衆에 대한 統治 및 支配를 維持하며 強化하는 手段이나 테크닉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Daniel Lerner 가 이야기하는 “感情移入”이나 “새로운 公共情報”(new public information)은 具體的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결국 政治家나 政府가 매스·미디어를 利用해서 民衆을 說得하고 그들이 願하는 政治過程에 參與하게 하자는 論理 以外的 아무 것도 아니다. Wilbur Schramm 이 『國家發展이란 人間變革 그 自體이며 人間變革을 가져오는 推進者가 바로 매스·미디어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또한 『커뮤니케이션은……을 위하여 利用되어야만 한다.』고 主張할 때, 그리고 Ithiel de Sola Pool 이 『미디어는 發展을 위한 道具(instrument)이며, 미디어가 効果的으로 利用되기 위해서는 政治組織과 密着되어야만 한다.』고 主張할 때, 이와 같은 論理가 Fascism 制度 下의 커뮤니케이션 理論이 아닌가 錯覺을 일으킬 程度다. 한 政府가 매스미디어를 完全히 掌握하고 가장 効果的으로 잘 利用하였으며, 下向式 커뮤니케이션 樣式이 極限的으로 支配하던 社會의 典型은 두 말할 것 없이 Fascism 體制였었다. Fascist 들은 政治權力을 掌握하자 그들의 政權과 權力을 正當化시키고 維持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 政策의 核心인 戰爭遂行을 위하여 모든 매스·미디어를 교묘히 操縱하고 나아가서 民衆들을 侵略戰爭으로 몰아세웠던 事態는 아직도 生生한 歷史的 事實로 記憶에 새롭다.

물론, 民主主義體制 下에 있어서도 下向式 커뮤니케이션은 重要한 役割을 지니고 있다. 任意的 政府가 展開하는 弘報活動은 政府政策에 대한 國民의 支持를 獲得하는데 있어서 不可缺의 것으로 되어있으며, 매스·미디어를 積極的으로 利用하였을 때 가장 効果的인 것이다. 그러나 매스·미디어가 이와 같은 下向式 커뮤니케이션의 導管 구실 만을 담당하고 政

府組織과 密着되어 있다면, 그리고 民衆의 뜻이나 批判을 反映해서 위로 傳達하는 channel 노릇을 하지 못한다면 그 社會는 民主主義 社會로서 發展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民主主義 社會에 있어서는 民衆의 意見, 카운터 커뮤니케이션(counter communication)이 正常的으로 機能해야만 한다는 것이 必須條件이기 때문이다. 政治過程에 대한 民衆意見의 feed back은 民主主義를 지탱하는 不可缺의 要素이기 때문이다.

低開發地域의 政治에 관한 많은 論文을 發表하기로 有名한 Edward A. Shils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煽動政治(demagogy)는 先進國에 있어서도 恒常 存在하지만은 新 生國家들에 있어서는 거의 不可避의인 것이다. 政治家가 競争에서 勝利하기 위하여 全國에 있는 有權者들의 投票와 同意를 얻어야만 하는 나라에서는 煽動政治에의 誘惑은 恒常 存在한다. 그리고 政治的 霧圍氣 속에 強한 民衆的 要素가 있을 때에는 그 誘惑은 점점 強해진다. 매스·미디어의 利用可能性은 煽動政治的 使用에 대한 하나의 招待狀(invitation)인 것이다.』⁽²⁷⁾ 現實이 이와 같다면, 특히 後進社會에 있어서 아직 民主的 制度나 政治風土가 確立되지 못한 狀況 下에서 近代化 論者들이 主張하는 바와 같이 政治家에 의해서 또는 어떤 政治勢力에 의해서 매스·미디어가 그들에게 密着된 狀態로 利用된다면, 과연 우리들은 거기서 社會의 民主的 發展이나 眞正한 國家發展을 期待할 수 있을 것인가, 주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煽動政治的 風土”를 是正해야만 할 立場에 있는 後進社會의 知識人들은 E. Shils가 指摘하는 바와 같이 그 任務를 遂行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狀況에 놓여있다. 『煽動政治的 文化의 中心部는 돈줄(purse strings)을 쥐고 있어서 어떤 方法으로든지 知識階級の 良心 위에 올라앉아 있다. 知識階級은 慎重한 配慮와 肉體的 經濟的 制裁에의 念慮로해서 煽動的 政治家에 대하여 積極的으로 反對하지 않는다. 그들은 自己가 贊成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政治家에게 別로 反對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政治家가 國家的 存立과 反植民主主義의 象徴((the symbols of national existence and of anti-colonialism)을 自己단의 것인양 쥐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앞에 놓고서는 知識人도 國家에의 忠誠心을 疑心받을 만한 行動이나 思考를 操心스럽게 避하려고 하기 때문이다.』⁽²⁸⁾

이러한 事情들로 해서 그러지 않아도 後進社會의 매스·미디어들은 그것 特有的 獨自성과 自主성을 喪失할 危機에 恒常 處해있는 實情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近代化論者들이 問題로 삼고 있는 “開發途上에 있는 國家들”의 매스·미디어가 더욱 政治組織에 密着되어야만 하고 그것의 “付屬物”로 轉落하여야만 할 것인지 懷疑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7) Edward Shils, "Demagogues and Cadres in the Political Development of the New States," in L. Pye ed. *ibid.* p. 67.

(28) Edward Shils. 前揭論文 p. 76.

V. 끝으로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있어서의近代化論者들의問題意識이나 그들理論의主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前述한 바와 같이 Lucian Pye 에 의해서 分明히 說明되고 있다. 다시 引用하거나 『過渡期에 있는 社會의 政府가 近代化를 促進하기 위하여 매스·미디어를 가장 잘 利用할 수 있는 길은 어떠한 것인가.』 또는 『政策志向的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大部分은 다른 사람의 態度나 行動을 變容시키는 問題라든가, 異質의 文化라는 障壁을 넘어서 行해지는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들을 取扱하는 것이다.』라고 그가 編輯한 冊의 序文에서 밝히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重要한 問題意識을 본다. 그 하나는 政策科學으로서의 “近代化에 관한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理論”이 어떤 社會, 具體的으로는 後進社會의 政治家나 政治勢力에 貢獻하는 意圖요, 또 다른 하나는 異質의 文化라는 障害物을 뚫고서 他人의 行動에 影響을 주기 위한, 말하자면 未開發社會의 住民들에게 一定한 精神 內容을 傳達하고 이른바 “國際的 協力”(International Cooperation)⁽²⁹⁾을 達成하자는 目的意識이다.

前者의 問題 意識은 매스·미디어의 本質的인 存在樣式을 多分히 侵害하는 論理다. 매스·미디어의 存在樣式은 power elite와 民衆과의 사이에서 兩面交通的인 媒介의 導管으로서의 구실을 하는 것이지만, 그러면서도 어디까지나 民衆의 意見을 吸收 反映하는 카운터 커뮤니케이션이 優先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매스·미디어가 어떤 社會의 一部 權力者나 政治家의 恣意에 의해서 마음대로 利用된다든가 民衆이나 小集團의 意見을 反映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리어 그 社會體系는 動脈硬化症을 일으킬 것이며, 眞正한 發展이 있기 보다는 오히려 逆行한 것이 있을 것이다.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의 本質的 存在樣式과 관련하여 어떤 研究者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言論의 自由와 情報의 多樣性이 確保되어있지 못하다면은 社會와 人間에 對해서 永續的인 前進이나 進歩의 原動力은 없어지고 말 것이다. 말이 人間을 만들었다고 하는 立場에 서는 限, 人間과 그 社會의 發展可能性과 言論의 自由와는 바로 相互媒介的인 關係에 있다고 해야만 할 것이다.』⁽³⁰⁾

오늘날 “發展을 이룩한 國家”(developed country)에 있어서도 이른바 “操縱型 民主主義”(manipulated democracy)가 문제가 되고 있다. power elite에 의해서 一般的으로 統制되고 管理되며 一般民衆은 다만 飼育 당하고 馴化될 뿐인 政治現實은 眞正한 民主主義와는 아무런 關係가 없는 社會이다. 이와 같은 政治過程 속에서 精神의 飼育과 馴化의 任務를 담당하는 것이 매스·미디어인 것이다. 이러한 論理가 支配하는 社會에서는 民衆들은 아무런 自主性도, 아무런 實質的 主權도 갖지 못하며 오로지 受動的이고 可塑的인 存在로 轉落되고 말

(29) D. Lerner의 論文題目.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in National Development” in D. Lerner and W. Schramm ed. *Communication and Change in the Developing Countries*,

(30) 早川善治郎 前掲論文, p. 76.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미디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人間이 自主的인 立場에서, 또한 主體的인 立場에서 이루어지고人間自身の 目的에 付合되도록 機能하여야만 한다.人間 自身이 他로부터 統制 당하고 操從당하기 위한 道具로 存在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後者の 自的意識은 後進 新生國家에 대하여 選擇possible한 範圍 內에서 西歐 model을 移植시키자는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는 파키스탄의 研究者 Inayatullah가 뜻있는 發言을 하고 있다. 1964年 Hawaii Seminer에 參席했던 研究者 中에서는 좀 色다른 意見을 가졌던 그는 대략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發展途上에 있는 國家의 民衆들에게는 非西歐的이며 또한 外部로부터 強要당하지 않는 發展의 類型이나 目的이 필요하다. 歷史라는 것은 西洋人의 그것과 똑같은 運命이나 價値方向으로 發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發展에 관한 西洋의 概念을 無批判的으로 받아들인 後進社會의 學界나, 거기에 妥協하는 것이 便利하다고 生覺한 政治的 官僚的 elite들은 痛烈히 批判 받아야 한다. 發展을 위한 “改革의 새길”(innovate new ways)은 強要당하지 말고, 그 나라 사람에 의해서 創造되어야만 한다. 그것은 결코, 西洋의 援助(Western aid)에 의해서든지, 또는 國家主義的이거나 이미 近代化된 國家에 의해서 強要되어서는 안된다.』⁽³¹⁾

發展을 위한 西洋의 model이 全的으로 拒否될 必要는 없지마는, 發展途上에 있는 어떤 社會의 歷史的 文化的 社會的 各가지 構成要素들이 西洋의 그것과 當然히 다르기 때문에 이들 社會의 發展過程 또한 당연히 西洋의 그것과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近代化論者들이 追求하는 이른바 “異質의 文化라는 障壁을 넘어서 行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도 그것을 받아들리는 社會의 自主性을 侵害해서는 안 될 것이며, 더욱이 獨善的으로 強要하는 일이 있어서는 더욱 안되는 것이다.

원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人間과人間, 그리고 集團과 集團, 나아가서 社會와 社會 사이에 相互理解의 架橋를 놓는 것이지, 특수 少數集團으로부터 下向式 커뮤니케이션 만이 一方的으로 흐른다면, 몇몇 發展된 社會에서 그러지 못한 社會로 一定한 價値觀이 흐르는, 그러한 性質은 아닌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研究者 中의 近代化論者들이 가지고 있는 後進社會開發에 대한 熱意는 높이 評價하지만은 다만 그들의 問題意識과 論理에 대하여 하나의 深刻한 懷疑를 提起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31) Inayatullah, "Toward a Non-Western Model of Development," in D.Lerner and W. Schramm ed. *ibid.* pp. 98~99. 解説文 參照.